

# 박대통령 약속한 ‘특별법’ 수사권에 ‘발목’

### ■ 세월호 참사 100일...쏟아진 대책들,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후속 과제 27종 중 ‘핵심’ 빠진 7건만 이행 ‘국가안전처’ 신설도 소방관 등 반발로 난항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았지만 그동안 쏟아진 각종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유족의 최대 요구 사항이자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수사권 문제 등에 걸려 여야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정부가 책임을 엄히 물리겠다며 임시 반성회까지 열어 뒤늦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도 결국 실패했다. 정부가 박 대통령 담화 후속 과제로 제시한 27종 가운데 23일 현재 실현된 것은 7건 안팎에 불과하다. 특히 유족의 핵심

요구 사항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큰 진척이 없어 약속대로 추진 중인 후속 대책들이 당당히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특별법 제정 ‘표류’>=박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수사권과 국가의 보상책임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단식을 불사하며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유족 측만 애가 탈 뿐이다. 또 유족과 이들을 돕는 시민사회는 진상 규명 없는 각종 후속 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기업의 문을 닫게 하려고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제3자 앞으로 숨겨 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담화 후속 대책도 감감무소식이다. <국가안전처신설법, 소방관 집단반발로 ‘난항’>=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애초 정부의 약속대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방조직 및 해경, 이에 가세한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 신분인 대부분의 소방직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가안전처 신설법안과 재난안전체계 재설계 계획이 소방관 신분문제와 연계되면서 갈 길 바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구조 책임론으로 잠잠하던 해경의 반발도 감지된다. 야당은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가칭)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재난통신망 구축·선박승객 신분 확인 등 일부 진전=선박 탑승객의 신분확인이나 재난통신망 구축사업 등 일부 후속 조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부터 여객터미널에서 승선권을 발급할 때와 탑승 때 모두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여러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달 30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급적 3~4 학급 단위로 수학여행을 가도록 권장하고,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의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관료의 업무 관련 민간분야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차단하는 대책도 부분적으로 마무리됐다. 10여 년간 표류해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박 대통령 담화 이후 속도가 붙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여야, ‘유병언 사망’ 책임론 공방 야 “경찰청장·법무장관 경질” 여 “정략적 이용해선 안된다”

여야는 번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원이 40일이나 지난 뒤 에이 확인된 것을 놓고 23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성한 경찰청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책임자 문책에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경찰 지휘부 문책까지 하는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또 하나의 참사로 ‘유병언 참사’로 불러 마땅하다”면서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절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검거 실패와 사체 발견은 청와대와 정부의 시스템 붕괴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등 책임자 경질을 촉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7·30 대선 대덕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병언 미스터리가 술한 괴담과 의혹을 낳는

다”며 “국민의 의혹과 당혹감에 대해서 모그림 회포를 독려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답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원내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과 경찰이 전혀 손발이 맞지 않고 엇박자를 낸다는 측면, 발견한 시점이 6월12일이라고 하는데 유병언과의 관련성을 전혀 추정조차도 못했다는 것에서 일종의 국가 시스템 붕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유씨가 번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야당은 각종 의혹과 루머를 확산시키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월호의 아픔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을 더 아프게 하는 것으로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이 무한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이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별법 제정 호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에서 도보행진을 출발하기에 앞서 문제인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행진

### 가족대책위, 안산서 서울광장까지...박영선·문제인 등 야당 의원 동참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3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

재인, 김영환, 부좌현 등 야당 의원 10여 명, 사회단체 회원들도 함께 했다. 대책위는 출발 선언문을 통해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속수무책으로 침몰한 세월호와 다를 바 없다”며 “모두를 위한 진실과 안전을 기약할 수 있는 특별법

이 제정될 때까지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를 출발, 단원고와 서울 여의도 국회의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1박 2일 간 51km의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4회 구속 4회 무죄’ 기록 인증

### 한국기록원, 새정치 박주선 의원에 인증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사진) 의원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기록원으로부터 ‘4회 구속 4회 무죄’로 구속 후 죄다 무죄판결을 받은 기록인증서를 받았다. 기록원 상임고문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인증 총평을 통해,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네 번 구속, 네 번 무죄’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를 절대 바라만 보아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음모와 증거, 뒷방림의 약속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공식기록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인증서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 의원은 “네 번 구속, 네 번 무죄라는 기록이 결코 자랑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아직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당할 때마다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 꼭 정의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올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업무용 부동산 매각 입찰 공고

당 조합의 소유 재산을 공개입찰로 매각하고자 자산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매각자산

소재지	지목	면적(㎡)	매각예정가격	비고
전남 진도군 진도를 양정2길 39 (지번: 양정리 23-1)	대지 건물	754.00 1365.54	1,048,623,280	지점사무실 (현재)

나.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시작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 및 개찰 장소
2014. 8. 5(화) (10:00)	2014. 8. 5(화) (14:00)	2014. 8. 5(화) (16:00)	해남신협(본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56)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당 조합 계약규정 제10조에 따릅니다.

3.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 시간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당 조합의 계약규정 제26조에 따릅니다.

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신청지역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하고, 또한 계약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 해약하고 계약보증금은 조합에 귀속합니다.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동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어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조합에 귀속합니다.

6. 기타 및 문의 사항  
가. 기타 세부 사항은 당 조합의 자산관리규정 및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나. 문의 사항은 해남신협(본점 061-5333-7200, 진도지점 061-542-78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해남신협협동조합 이사장**

## 전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 필사본
- 정가: 32,000원(택배비 포함)
- 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불법 복제를 금함

##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뽁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뽁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든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성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